

# “한중, 北비핵화-韓평화구축 중요 관계”

## 문재인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실질적·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베를린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언급하면서 “이런 계기로 한·중관계를 실질적·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쉘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히 인양했다. 상하이 쉘비지의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만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작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하이 쉘비지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같은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래없

이 가장 빠르게 무사히 인양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에는 시 주석이 상하이 쉘비지를 직접 돌려준 것으로 인다”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 최인정 도의원 ‘군산조선소 준차’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군산조선소 도차 준차와 전북도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실행을 거듭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도와 군산시의 노력을 무시하고 군산조선소가 동종단으로 지역경제 몰락을 가져왔다”면서 “지금까지 200여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처사는 전북도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렬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동안 도와 전북도는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진입도로 건설, 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특히, 군산조선소는 130만 톤의 도크와 1,650톤의 골라이트 크레인 보유 세계 최고의 시설로 전북 경제의 상징성과 세계적인 경쟁력 등을 감안해 정부 또한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반면, 군산조선소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LH 이전 무마 위해 거짓투자약속으로 정부와 삼성에 속았는데 이번 군산조선소는 정부가 적극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북도민을 달래기 위해서는 군산조선소에 정부발주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일 기준 현대중공업 주식 9.3%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국무총리실에서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최 의원은 지속적으로 군산조선소 살리기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교민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 총리실에서 만찬회담을 마치고 한국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김종희 의원, “새만금사업은 불변의 국책사업”

### 국정위 100대 국정과제 제외 시도 강력 비판... “文 대통령 직접 약속 국책사업 명명”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전북사업으로 몰아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종희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벌이는 불명백한 작태를 당장 멈추고 국책사업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통령의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버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기에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마당에 탄소리로 전북을 능멸하려는 지 알 수 없다는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전북도는 아무 결정권한도 없었음은 물론, 정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중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이고,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을 주도하여 개발 속도감을 높여나가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고 국책사업으로 명명했던 것을 이제

일”이라며 국정자문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낸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행태를 후안무치로 규정한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결과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명명한 국책사업이니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檢, ‘제보조작’ 이유미 19일까지 구속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이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9일까지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 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5월3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작 사실을 인정했으나 단독범행이 아닌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이윤주 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 보좌관인 김모씨를 이날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김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밝혀 오후로 출석이 연기됐다.

이날 낮 12시30분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검찰에서 소환 통보한 이유에 대해 듣는 게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 없었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지난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파일을 건네 받은 후 다음날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다.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들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제보 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와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워싱턴 조사를 통해 제보 검증 과정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추미애, 국민의당 사퇴 요구에 “놔둬 버리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안철수·박지원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일직 비협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놔둬 버리지(놓아 두자)”고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고 반응을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리 공모당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뉴시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사과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정계은퇴도 요구하고 있다”는 물음에는 “아, 그러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추 대표는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언급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을 사실상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 “진상조사라고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이날 저녁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쁜바는 학교에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